



큰홍지네고사리

주름금강아지풀

흰비늘고사리

쇠방동사니·밭뚝외풀... 무등산 식물 새얼굴 21종 확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에서 신규 식물 21종의 서식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서식이 새롭게 확인된 식물은 주름금강아지풀, 광릉용수철, 애기하늘지기, 쇠방동사니, 굴포야제비, 긴두

잎갈퀴, 좁민~하늘지기, 밭뚝외풀, 병아리방동사니, 털쇠무릎, 섬모시풀, 울미, 넓은잎마귀리나시, 쫄쫄피, 가지취꼬리새, 나도개관중, 큰홍지네고사리, 흰비늘고사리, 푸른각시고사리, 뽕모시풀, 쫄쫄피이다.

신규 식물은 그간 조사가 취약했던 벼과, 사초과 식물과 양치식물이 대부분으로, 분야별 전문가 합동 조사를 통해 서식이 확인됐다. 이로써 무등산 서식 확인된 식물은 총 1426종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절멸 된 식

물도 알려진 무등풀도 계속해서 추적할 계획이다. 같은 속(屬) 식물인 너도고랭이 서식은 확인됐다. 무등풀은 멸종위기식물이 아닌 멸종식물로 분류됐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등산에만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5 해질 18:02
일출 05:40 일몰 1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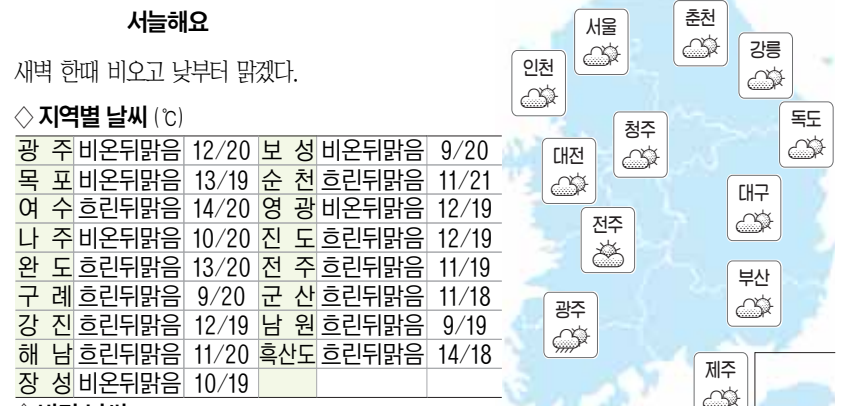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details for Gwangju,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wind directions, and a 7-day forecast.

“수능 고난도 문제 안낼 것... 모의평가 수준”

수능 한달 앞... 김영수 교육과정평가원장 밝혀

“대학들 변별력 확보·시험 문제 오류 없을 것”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영수 원장이 다음달 12일 치러질 수능의 난이도를 모의평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능 난이도와 관련, “6월 모의평가부터 9월 모의평가, 본수능까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6·9월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된 점을 고

려하면 수능 문제도 기존 모의평가와 같은 기조를 출제될 것으로 해석돼 사실상 ‘물수능’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국어 A형 6.12%, B형 1.29%였으며, 수학 A형 1.17%, B형 4.11%, 영어 4.64%이 될 정도로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제를 포함할 계획을 묻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어려

운 수학, 영어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그 한 문제를 맞히려고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물수능’에 따른 최상위권 변별력 논란에 대해서도 “6월과 9월 모의평가 수준이면 대학들이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8학년도에 도입될 영어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어 능력을 반영하는 ‘대학별 고사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전형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평가원은 수능개선위가 마

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6월 모의평가 때부터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문제 오류도 전혀 없었고 이의신청, 심사과정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믿어주시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수능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김 원장은 “수능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수능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며 “아무리 줄여도 수능은 정시 비중의 20~30%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행락철’ 광주·전남 산악사고 잇따라

장성 60대 男 음주실종·장흥 60대 女 골절상 등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11일 광주·전남지역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3시35분께 장성군 북하면 뒷산을 등반하던 장모(62)씨가 실종됐다. 신고를 받은 내장산 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구조대와 119구조대가 이 시각 현재까지 수색 중이며 날이 어두워지면 시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씨는 산악회 일행 60여명과 함께 등반했고 실종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낮 12시40분께 장흥군 전관산 등반하던 이모(여·62)씨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낮 12시2분께는 영암군 월출산에서 산행하던 배모(여·50)씨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중·고 교육정책 시민에 묻는다

광주시교육청 내일 토론회

광주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원탁토론회를 연다. 시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광주 효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용봉중(23일), 삼우고(30일)에서 ‘소통으로 하나 되는 광주교육’이라는 부제 아래 시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 4회 광주교육 원탁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수지아, 노~을~자!’, ‘학생 놀 권리 보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중학교의 경우 ‘육, 빼고 말해!’, ‘육 빼고 말하는 힘을 어떻게 길러 줄 수 있을

까요’라는 주제를 정해 학생들의 육 중독 실태와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고등학교는 ‘자율인 듯 자율 아닌 자율 같은 너~’, ‘자율학습인가, 타율학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입시 교육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율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학생·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율 학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교육청 구상이다. 아울러 다음달 6일에는 민주시민교육, 생활교육, 빛고을혁신학교, 스마트폰 중독, 대안교육, 환경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9개 분야에 대한 ‘광주 시민교육 토론회’를 새별초등학교에서 연다. 장휘국 교육감은 매 토론회마다 마련된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시민들과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토론회 결과는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을 5·18 공원에서 ‘추모 음악회’

17일 가수 김원중·퓨전 난타 공연팀 ‘얼쑤’ 등 참여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광장 잔디밭에서 ‘제11회 5·18 추모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퓨전 난타 공연팀 얼쑤, ‘바위섬’을 부른 가수 김원중, 아시안발레단, 광주CBS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5·18추모음악회

는 유가족, 시민, 학생 모두가 다채로운 음악과 공연을 통해 5·18민주항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최정길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지역 청소년·시민들이 즐겨 찾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국립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기자 kki@

Large advertisement for Jeju travel packages. Title: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여행' (Jeju Travel where the Mearyi sound is heard). Includes details for bus tours (2 nights 3 days) and car rentals (2 nights 3 days), listing prices, inclusions, and discounts for hotels and rental cars.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